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 2022년도 제50호

2022.12.17(토)

체육시민연대 연말 송년회

### 2022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조사

### 초등학생 희망직업 1순위 운동선수, 중·고생은 교사

고우리 광주KBS 기자

### 한국학생선수아카데미

### “프로행 좌절된 축구 선수에게 기회를”...美대학 진학설명회 열린다

박대현 SPOTV 기자

###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 ‘인명 구한 심폐소생술’ 고교 야구선수 선행, 사례도 거절한 이유

고유라 SPOTV 기자

### 최연소 여성 국가대표 김라경

### 최연소 여자 국가대표 야구선수... ‘최초를 던지는 천재 야구소녀의 아이콘’

김동환 매일일보 기자

### 대한빙상경기연맹

### 회장배 쇼트트랙 선수권 17일부터 아산서 개최... 김아랑·황대한·이준서 출전

이재상 뉴스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 초등학생 희망직업 1위 운동선수 중, 고생은 교사

가장 선호하는 장래희망 직업으로 초등학생은 운동선수를, 중·고등학생은 교사를 꼽았습니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오늘(19일) 지난 6월 7일부터 7월 20일까지 전국 초·중·고 2만 2,70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한 '2022년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초등학생들의 희망 직업 1위는 운동선수(9.8%)였고, 2위는 교사(6.5%), 3위는 크리에이터(6.1%), 4위는 의사(6.0%)였습니다.

운동선수는 지난 2019년부터 4년째 초등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업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희망 직업 1위는 교사(11.2%), 2위는 의사(5.5%), 3위는 운동선수(4.6%), 4위는 경찰관/수사관(4.3%)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은 교사(8.0%), 간호사(4.8%), 군인(3.6%), 경찰관/수사관(3.3%), 컴퓨터공학자/소프트웨어 개발자(3.3%) 순으로 희망 직업을 꼽았습니다.

졸업 후 창업을 희망하는 고등학생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올해는 지난해보다 1.3%p 상승한 2.9%를 기록했습니다.

희망하는 직업이 없다고 답한 학생은 초등학생 19.3%, 중학교 38.2%, 고등학교 27.2%에 달했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지난해보다 1.6%p 감소했지만 중학생은 1.4%p, 고등학생은 3.5%p 각각 증가한 수치입니다.

희망 직업이 없는 이유로는 중학생(52.5%)과 고등학생(47.7%)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직 몰라서'라는 답이, 초등학생도 '내가 잘하는 것(강점)과 못 하는 것(약점)을 몰라서'(39.2%)라는 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 “프로행 좌절된 축구 선수에게 기회를” 美대학 진학설명회 열린다

프로 진출 및 대학 진학이 무산된 국내 엘리트 축구 선수에게 미국대학 진학의 길이 열린다.

KSA한국학생선수아카데미(KSA)는 오는 18일 서울 강남구 KSA 본사에서 미국대학교 축구특기자 전형 진학설명회를 개최한다. 미국대학체육협회(NCAA) 진학을 통해 프로 선수의 꿈을 이어 가는 것은 물론 은퇴 뒤 제2의 인생까지 설계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설명회다.

2017년에 설립된 KSA는 지난 6년간 프로 진출 또는 국내 대학 진학이 무산된 축구 선수에게 미국대학 진학을 추진했다.

미국대학 입학 뒤에도 축구와 학업의 병행을 어려워하는 학생 선수에게 KSA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이를 통해 성공적인 연착륙 사례를 만들어오고 있다.

올해 KSA는 5기 수료생을 배출했다. 그간 약 50명의 선수가 KSA를 거쳐 미국대학에 진학했다.

KSA 수료생 중 일부는 NCAA 디비전 I 소속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으며 축구 선수로 활약하고 있다.

현역 선수로 뛰면서도 각자 전공을 선택해 대학 생활을 병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KSA 2기 수료생으로 울산 현대고를 졸업한 김승언은 현재 메릴랜드 주립대에서 정보과학(Information Science)을 전공하며 선수로 활동하고 있다.

김승언은 “특기인 축구를 활용해 프로 선수 꿈을 키우면서 은퇴 후 삶까지 준비할 수 있다는 건 매우 즐거운 일”이라며 “(축구 선수라면) 누구나 도전 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광양제철고를 졸업한 뒤 위스콘신 주립대에 진학한 장현상은 “공부와 담 쌓았던 고교 시절과는 달리 미국은 '대학 선수'이기에 공부를 반드시 병행해야 하는 구조”라면서 “미래 모든 선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귀띔했다.

이 밖에도 KSA 3기 수료생인 김찬용은 미국대학 졸업 뒤 K리그 수원FC에 입단해 화제를 모았다.

프로축구 선수 출신의 체육학 박사인 KSA 김기중 대표는 “현재까지 KSA 교육과정 수료생 중 미국대학 진학에 실패한 이는 단 한 명도 없다”면서 “국내서 축구만 한 엘리트 선수가 어떻게 이런 도전이 가능하고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쳤는지 이번 설명회에서 공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진학설명회는 사전 예약을 통해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KSA 페이스북과 홈페이지, 카카오톡(KSA한국학생선수교육원)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인명 구한 심폐소생술’ 고교 야구선수 선행, 사례도 거절한 이유

성남고 2학년 내야수 공도혁(17)이 아마추어 야구 '최초' 타이틀의 주인공이 됐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는 19일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2022 야구소프트볼인의 밤에서 공도혁에게 모범상을 수여했다. 공도혁이 받은 모범상은 야구소프트볼인의 밤에서 올해 처음으로 생겼다.

KBSA가 모범상을 신설한 까닭은 공도혁이 꼭 칭찬받아야 할 일을 했기 때문이다. 공도혁은 지난 8월 26일 아파트 피트니스센터에서 쓰러진 50대 남성에게 약 20분간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남성을 살려냈다.

학교에서 1년에 한 번씩 학생들에게 심폐소생술을 가르치고 있지만 고2 소년이 당황하지 않고 바로 쓰러진 남성을 구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은 일. KBSA는 공도혁의 선행이 다른 이들의 모범이 되도록 널리 알리기 위해 그를 초대해 선행상을 안겼다.

시상식 후 만난 공도혁은 "이렇게 큰 상까지 받을 줄은 몰라서 아직도 얼떨떨하다. 자리를 마련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 좋은 일로 얼굴을 알리게 돼 기쁘다. 이제는 좋은 야구선수로 성장해 야구 시상식에 서고 싶다"고 겸손하면서도 당찬 소감을 밝혔다.

공도혁은 "나도 사실 처음에는 두렵고 무서웠다.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다. 그런데 학교에서 심폐소생술을 배웠고 그 일이 생기기 2주 전에 우연히 심폐소생술 영상을 봤다. 그리고 당시 옆에 계시던 어른들이 응원해주시고 제세동기나 119 신고도 매뉴얼대로 해주셔서 긴장이 많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미담도 있다. 공도혁의 심폐소생술로 살아난 남성은 그에게 사례를 하고자 했으나 공도혁과 그의 가족들은 사례를 거절했다. 그는 "교육받은 대로 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서 사례를 받는 게 더 이상했다. 통화로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들었다"며 씩스럽게 웃었다.

"이제 야구로 인정받고 싶다"는 공도혁의 말처럼 그는 내년이면 '고3' 수험생이 된다. 공도혁은 올해 고교야구 19경기 7득점 타율 0.327 OPS 0.785를 기록했다. 스스로는 "타석에서 집중력, 특히 2스트라이크 이후 집중력이 좋다. 수비에서도 시야가 넓고 멀리 가는 타구도 쉽게 잡는 순발력이 있다"며 어필했다.

공도혁은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2014년 당시 넥센 히어로즈 선수였던 서건창(LG 트윈스)이 항상 더러운 유니폼으로 팀을 위해 뛰는 것을 보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야구를 시작했다. 인명을 위해 주저하지 않았던 선행의 정신으로, 이제는 어딘가 있을 자신의 프로팀을 위해 희생할 준비를 하고 있는 야구선수 공도혁이다.



## 최연소 국가대표

운동선수라면 모두가 꿈꾸는 국가대표에 2015년 14살의 나이로 최연소로써 발탁되어 2016년 한국에서 개최된 가장 큰 세계대회인 WBSC 여자야구월드컵에 출전하였습니다.

매일일보 2022.12.16  
김동환 기자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낸다면, 여자야구를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은 채 출전한 첫 월드컵에서는 쓴 고배를 마셔야만 했습니다. 한편으로, 스스로가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김라경 최연소 여자 국가대표 야구선수... '최초를 던지는 천재 야구소녀의 아이콘'

"이제는 소녀가 아닌 야구경력 12년차의 국가대표 야구선수 김라경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라경 야구선수의 당찬 인사다.

그는 현재 서울대학교 재학생이다. 여성으로서 최연소국가대표, 천재 야구소녀, 대표팀 안경 에이스 최초의 아이콘으로 불리고 있다.

그는 운동선수라면 모두가 꿈꾸는 국가대표에 2015년 14살의 나이로 최연소로 발탁, 2016년 한국에서 개최된 가장 큰 세계대회인 WBSC 여자야구월드컵에 출전하기도 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또한 그는 2015년 3월 리틀야구 사상 여자선수로서 최초의 홈런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대학리그 최초의 여자선수이자 최초의 안타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렇기에 김라경 선수에게는 늘 최초라는 수식어가 늘 붙어다닌다.

김 선수는 16일 오전 10시, 남양주시의 '휴먼북 라이브러리' 개막식에서 휴먼북 라이브러리와 인연으로 이어진 여자로서 5살짜리 야구장 마스크트에서 국가대표 야구선수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전개한다.

남양주시 주광덕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휴먼북 라이브러리. 휴먼북 라이브러리의 의미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책으로써 열람할 수 있는 도서관을 뜻한다.

휴먼북은 사람이 한 권의 책이 되어 이를 필요로 하는 독자들과 대화 및 활동을 통해 경험과 지식을 전달하는 멘토 멘티 지식공유 플랫폼이다.

휴먼북라이브러리는 자신이 가진 재능을 순수한 마음으로 남양주 시민을 위해 기부하는 멘토 멘티 프로그램이다.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 단절되어 있던 사회를 연결하여 소통하며 경험과 지식을 나눌수 있는 화합의 장을 전개하는 것이다.

김라경 야구선수. 여자선수로서 운명처럼 다가온 기회에 공하나 던지고 푹 투수로 간 일본에서 부상, 타격부터 시작한 김라경의 도전을 들어본다.

그는 대학리그 최초의 여자선수 등판으로 서울대학교에 입학해 엘리트 남자야구선수들 중 대학야구연망 사상 첫 여자선수로 등록되어 뛰었다.

그는 공식경기 연세대학교와 상대로 첫 출전 첫 안타를 기록하기도 한 유일무이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그는 일본에서 투수로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부상으로 국내에 들어와 치료를 받고 있기도 하다.

다음 장 계속



그의 야구인생은 5살때 야구장 마스크로부터 시작된다. 김 선수의 오빠는 김병근(한화이글스 전 프로선수)다.

김라경 선수는 "7살 터울의 오빠는 초등학교 4학년때부터 야구를 시작, 동생인 저또한 5살때부터 오빠를 따라다니면 야구와 인연을 맺었다."며 "처음에는 야구에전혀 관심이 없었던 그저 야구복을 입기 좋아흔 흠파는 꼬마였다"고 밝혔다.

5살꼬마 야구장 마스크였다던 김라경 선수. 그는 리틀야구단 입단과정에서의 여자선수로서의 기존의 저변에 깔려있는 사회의 인식에 대해 언급했다.

김 선수는 "여자는 야구선수가 될 수 없다. 야구는 너무 위험하다. 차라리 소프트볼을 하라 커서 뭐하려고 그러냐. 시작도 하기전부터 수없이 들었던 말들이었다"고 밝히며 "사회의 걱정과 노파심은 시작조차 가로막는 하나의 두터운 장벽처럼 느껴졌다."고 그 당시를 회고했다.

그러면서 김 선수는 "때론 한 사람의 생각 차이가 세상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좋아하는 야구를 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 한사람이 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야구를 향한 김 선수의 투지와 열정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그의 야구에 대한 열정과 투지가 결국 '김라경 특별법'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김라경 특별법'은 리틀 야구 졸업 이후 중학교 야구단에 입단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여학생에 한해 리틀 야구단 소속 기간을 중학교 3학년까지 연장 할 수 있는 법이다.

이렇듯 김라경특별법으로 인해 현재 야구를 하는 여학생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022년 여자 야구 국가대표 최종 엔트리 22명중 2000년대 생이 약 14명에 이르르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생 김라경 선수의 등장으로 인해 수정된 '리틀 야구단 나이 규정'덕이 큰 것이 된 것이다. 학교 야구부 없이 알아서 야구를 해온 여학생들이 마침내 또래의 동료들을 만날수 있을 정도로 늘어난 것이다.

2021년 9월에는 여자야구 활성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최초의 외인구단인 JDB 여자외인구단 'JUST DO BASEBALL'결정되기도 했다.

이 외인구단은 공식 국제대회(월드컵)을 제외하고 한 고유의 팀으로서 경기 중계를 한 최초의 팀이다. 그는 현재 JDB의 경영자이자 플레이 코치로서 활동하고 있다.

최초의 여자 외인구단. 이들은 어려운 환경속에서 전문적인 야구를 배운 학생신분의 선수들로 구성돼 있으며 14명 중 7명의 선수가 현재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김라경 선수 그는 인터뷰를 마치며 "비포장도로의 길이라면 제가 깔면서 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자신감은 있습니다."며 강한 도전의식을 던졌다.

# 회장배 쇼트트랙 선수권 17일부터 아산서 개최 김아랑, 황대헌, 이준서 출전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제38회 회장배 전국남녀 쇼트트랙스피드스케이팅 대회를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간 아산 이순신체육관빙상장에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남녀 500m와 1000m, 1500m, 3000m, 혼성계주 2000m 등이 열리며 400여 명의 학생부 및 실업팀 선수들이 출전해 경쟁을 벌인다.

초등부와 중등부 경기는 대회 1~2일차에 열리며 고등부와 대학부, 일반부 경기가 대회 3일차와 마지막 날 진행된다.

# 주간 스포츠 소식

"고등학생이 홈런 10개를 치다니"...'원조 홈런왕' 헐크도 놀란 파괴력

<https://www.spo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4055>

"비치 핸드볼 선수는 왜 비키니를 입을까"...썸 이상한 체육 시간 [신간]

<https://www.news1.kr/articles/4900634>

왓슨앤컴퍼니, 서울체육고등학교 사격선수들과 산학협력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9156>

윤 대통령, 기능올림픽 선수단 만나 "숙련기술자 정당한 보상체계 확립"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010171&plink=ORI&cooper=NAVER](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010171&plink=ORI&cooper=NAVER)

KBL, 유망선수 해외연수 프로젝트 오리엔테이션 실시

<http://www.rooki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131>

울산교육청, 학생맞춤형 체육·예술교육 성과 토크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221\\_0002130944&cID=10899&pID=10800](https://newsis.com/view/?id=NISX20221221_0002130944&cID=10899&pID=10800)

대전시축구협회, 초중고대학 학생선수 68명에게 각종 포상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737608>

대전시체육회, 우수선수 47명에 한국타이어 후원 장학금 전달

<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9911>

전남교육청, '2022년 우수 학생선수' 22명에게 장학금 전달

<https://www.breaknews.com/939692>



# 체육시민연대

##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